

「SOC 예산 확대」 관련 건설산업계 호소

2017. 11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2018회계년도 사회간접자본(SOC)에 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전년대비 4.4조원, 20%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 드립니다.

□ 건설이 곧 “복지” 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 건설이 곧 “일자리” 입니다.

젊은이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 건설이 국민의 “안전” 과 “생명” 을 지킵니다.

교량, 도로, 학교의 노후화로 국민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후시설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 를 살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경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GNP 3만불시대를 견인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라면 건설에 전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 건설이 “경제 영토” 를 넓혀 갑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살아남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2백만 건설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내년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 원대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해 나갈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2백만 건설인 일동